

「농작업 재해 실태조사 및 농업인안전보험 제도개선 연구」 용역 관련 일본 출장 보고서

□ 목적

- 우리나라의 농업인안전보험 제도의 성과 및 전반적인 장점과 한계점을 살펴보고 개선안을 제안하기 위해 해외 제도의 사례를 분석할 필요
 - 해외 사례 및 관련 기관 방문을 통해 벤치마크 가능성이 있는 국가의 제도 분석
 - 일본의 제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농업인안전보험이 민영보험사에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벤치마크 가능성이 충분
- 일본의 농업인안전보험 제도 사례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관련 기관(정부부처 및 연구소)을 방문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목적
 - 일본의 농업인안전보험 제도의 발전 과정 및 제도 개선 내용들에 대한 내용 파악
 - 일본의 농업인안전보험 제도와 산재보험과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호 및 보장을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에 반영할 만한 사항 자문

□ 해외 출장 일정

- 기간 : '18.11.5(월) ~ '18.11.8(목)
- 방문기관 : 일본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업성, 농림수산업 정책연구소, JA농업공제연합

○ 세부일정

일	시	방문기관
'18.11.5(월)	-	· 이동(한국 → 일본)
	오후	· 파소나 그룹의 도시농장 방문. · 농림수산성 및 정책연구소 연구원과 사전 미팅 겸 식사
'18.11.6(화)	10:00	· 농림수산성 방문
	14:30	· 농림수산성 정책연구소 방문
'18.11.7(수)	10:00	· 후생노동성 방문
	15:00	· 농업공제연합 방문. 미팅 후 식사
'18.11.8(목)	-	· 이동(일본 → 한국)

○ 방문자 : 총 4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백혜연 부연구위원, 조성호 부연구위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박성준 과장
- (NH 농협) 유재열 과장

□ 방문 기관 주요 질문

○ 농림수산성 & 후생노동성 공통 질문

1. [공통] 노재보험 구조(보장내용)

- 노재보험 안에서 일반근로자와 농업인에 대해서 보장 내용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지 여부

2. [공통] 노재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 각각의 역할

- 왜 구분해서 진행하는지, 어떠한 구조적(보장내용) 차이가 있는지, 노재보험에 농업인 임의가입을 독려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3. [공통] 현재 노재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에 대한 가입률(최소 과거 5년 자료 구득 가능 여부)

4. [공통] 농업인들을 위한 보험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그동안 어떠한 제도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개선 정책의 효과성과 한계점

○ 농림수산성

5. 농업인 정의

- 농업인 수 집계를 위한 정의 방법

(예: 우리나라는 최근 3개월 간 농작업 관련 일을 했는지 질문)

6. 농업인 수 추계 방법

-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지, 농가 수를 대상으로 하는지
- 농업인 수 추계를 위한 조사가 따로 있는지
- 장래 농업인 수 추계한 것이 있다면 자료 구득 가능 여부

7. 농업인을 위한 보험(노재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등)들에 대한 국고 보조 규모(1인당)

8. 노재보험 또는 농업인안전보험제도 안에서 영세농업인(저소득층 농업인)을 위한 지원제도가 있는지

- 예를들어, 보험료 감면, 또는 보험금 증액.

9.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홍보 방법은?

- 일본 농업인들의 보험에 대한 인식정도는?
- 일본도 민영건강보험(실비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

10. 농작업으로 인한 사망자의 사망원인과 사망자 수 조사 진행 방법 (지역보건소 활용)

11. 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재해, 사망에 대한 통계 조사가 진행되는지, 통계 조사 및 통계 결과 제공하는 주체는 어디인지

12. 앞으로 농업인 재해를 위한 보험 및 제도로써 농림수산성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 및 목표는 무엇?

- 노재보험을 통한 사회보험 방식인지, 민영보험사를 이용한 현재 방식인지

○ JA농업공제연합

13. 간단한 소개 부탁(정책보험 관련 농업공제연합의 업무 역사 관련. 보험상품 관련)
14. 농업인을 위한 정책보험 이외에 다양한 보험상품이 있는지.
15. 농업인안전보험과 노재보험에 대한 농업공제연합의 역할
 - 판매역할만 하는 것인지, 상품설계 및 보상 관련 업무 모두를 관리하는 것인지
16. 상품 판매 단위에 대한 질문
 - 개인, 부부 및 단체 가입 유형이 있는지. 단체 가입의 경우 보험금 지급 방법 사례 소개
(예: 대표 가입자에게 보험금 전체 지급을 하는지, 또는 전체 가입자 대상으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의사확인 등의 절차가 있는지)
17. 홍보 방법, 가입독려 방법은?
 - 다른 농업공제연합 상품에 비해 정책보험의 수익성(손해율)이 많이 떨어지는지(높은지).
 - 만약 수익성이 떨어지는 구조라면 그것이 내부적으로 홍보 노력에 대한 관심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는지

□ 일정별 주요 내용

- 1일차: 일본 인재 파견회사 파소나(Pasona) 그룹의 도시 농장 방문.



- 도쿄 중심에 위치한 파소나 그룹은 리노베이션 이전에는 건물 외관에서 식물공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텃밭과 나무들로 덮여 쌓

여 있었음.

- 일본의 인재파견회사인 파소나(PASONA)사가 2005년 2월 도쿄 오테마치 본사 지하에 식물공장인 ‘파소나 O2’를 설치하였었음. 식물공장은 990㎡(300평)의 공간에 6개의 재배실로 나뉘져 ‘꽃밭’(발광다이오드(LED)에 의한 꽃 재배), ‘장미·허브 정원’(인공광에 의한 장미·허브 재배), ‘계단식 논’(인공광 및 수경재배에 의한 벼 재배), ‘야채류 재배’(수경재배에 의한 토마토 재배), ‘야채밭’(야채 재배), ‘육묘실’(21세기형식물재배)로 꾸며져 있었음. 그러나 2009년 4월에 폐쇄.
- 현재 파소나 그룹은 낙농·관광목장 분야의 인재 육성 사업 홍보 등을 위해 본사가 입주한 빌딩에 ‘오테마치 목장’을 개설함. ‘목장’의 넓이는 1000㎡정도이며, 소, 염소, 미니돼지, 알파카, 홍학, 오골계 등을 사육하고 있음.
- 도심목장 설립의 목적은 도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다양한 동물들을 가까이에서 접하도록 하여 낙농업과 바른 식생활에 관심을 높이고, 더 나아가 낙농분야에서 일할 인재 육성에도 연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 함.



○ 2일차 오전: 농림수산성

- 면담자: (농림수산성) 타마오키 켄, 마츠자와 타다시, 시미즈 토모카즈
- 일본의 농업인(농업인 포함 전 국민)은 세무신고는 의무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농업인의 정의를 세금신고를 하였고, 1년간 작물 경작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연간 50만 엔 이상의 작물 판매 기록이 있는 자 등으로 정의함.

- 특별히 농업인들 중 저소득층인 농업인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정부에서는 포괄적인 개념에서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제도로써 지원을 해주고 있음.
- 농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의 수는 5년마다 진행되는 농림업인구센서스를 통해 통계를 냄.
- 일본의 농림수산성에서는 농업인의 산업재해에 대한 보호는 후생성의 노재보험에서 다루기 때문에 따로 정책보험을 만들어 보호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기존의 수입보험을 내년부터 새로 전면 개정하여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인한 수입 보전, 상해로 인해 휴업 등으로 인한 수입 보전 등과 같이 종합보험 형태로 수입 보전의 원인을 굉장히 폭넓게 잡고 있는 편임.



○ 2일차 오후: 농림수산성 정책연구소

- 면담자: (농림수산성 정책연구소) 마츠히사 츠토무, 요시이 쿠니히사
- 일본의 농업통계는 구조와 조사 환경 측면에서 우리나라 농업통계와 매우 유사하며 목적도 상당부분 일치함. 그러나 일본은 경영체 단위로 조사되어 개별 경영체의 교용현황 및 생산 활동과 경영실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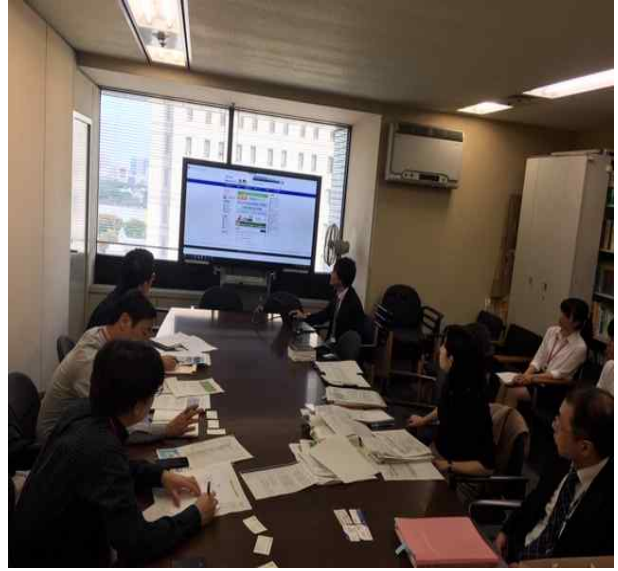
- 농림업의 생산구조와 취업구조 등의 실태와 농산촌 지역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농림업센서스는 가족 구성원의 취업 구조와 경영경지면적 등의 생산구조를 밝히기 위해 경영체 단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미래 농업인 수를 전망하는 방법은 매우 단순한 편임. 과거 5년마다 시행된 농림업센서스로부터 농업인 수 증감 패턴을 파악하고, 과거 증감 패턴의 평균값이 향후 단기간동안을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 가정하여 농업인 수를 연장함.
- 미래 농업인 수 전망 시 우선적으로 농가 수를 전망하고, 그 중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가족의 평균 비중을 추가적으로 전망하여, 최종적으로 농업인 수를 과거 패턴 그대로 적용하여 전망함. 이렇게 간단하게 추계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추계값과 실제치의 차이가 거의 유사한 편이기 때문에 간단한 추계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 편이라고 함.



○ 3일차 오전: 후생노동성

- 면담자: (후생노동성) 우에다 타카카즈, 오자키 미야코, 요코타 미치아키라
- 일본의 노재보험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임. 1명 이상 직원이 있을 경우 사업주는 강제 가입의 의무가 있음. 그러나 영세기업은 잠정적 유예를 해주는 편이었다고 함. 소규모 기업은 특별가입 형태로 가입이 가능함.

- 노재보험의 특별가입 조건은 1) 중소기업 사업자 또는 가족종사자, 2) 1인 사업자(예-개인 택시), 3) 특정작업(농업) 또는 위험한 작업 종사자, 4) 해외 파견. 이 중에서 농업인은 1)과 3)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
-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료 국가 보조는 따로 없음. 그러나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산업별로 보험료율이 다름. 총 54개 직종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농업은 임금의 1.3%로, 임업은 0.6%, 광업은 0.8%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고 함. 보험료는 1년에 1회 납입. 임의 가입의 경우에는 보험금(급여 수준) 크기를 선택하여 그에 대응하는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함. 그러나 농업과 일반 사업 간의 급여 내용에 차이는 없음.
- 특별가입과 같은 임의 가입의 확대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노력중이나 농업인의 산업재해 보호를 위한 완전 강제화 가입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함.
- 노재보험에서 농작업 관련 산재를 보호해 주고 있으나, 논과 밭 등에서 작업 중이 아닐 경우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지 않으나, 수확 후 농작물을 판매하러 가는 중에 상해는 올해부터 노재보험에서 보장해주기로 함.
- 작년 기준 노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종사자 수는 505만 명이며, 이 중 2,143억 엔의 급여(보험금)가 지급되었다고 함. 반면에 노재보험에 가입한 농·어업 종사자 수는 37만 명이며, 이 중 96억 엔의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함.
- 노동기준국에서는 노재보험의 사망 통계를 내고 있는데, 노동안전기준법에 따라 사고 발생 시 고용주는 반드시 서류를 작성하고 사고에 대한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고 함.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는 각 산업별, 사망원인별 통계표가 공시되고 있다고 함.
- 일본도 여전히 농업인의 노재보험 가입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홍보와 인식 강화의 목적으로 JA공제련과 후생노동성이 함께 협업하여 노재보험 가입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함.



○ 3일차 오후: JA농업공제연합

- 면담자: (JA농업공제연합) 요코야마 마사히로, 시오이리 카즈오, 후지오카 준,

(NOSAI 농업공제협회) 야스다 요시히토

- 우리나라의 농업인안전보험과 유사한 보험을 JA농업공제연합 뿐만 아니라 일본의 몇몇 민영보험사에서도 판매하고 있다고 함. 그러나 JA농업공제연합은 조합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험료가 낮고, 보험의 보장 내용도 다양한 편이라고 함.
- 농작업 보험은 99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사망 보장, 의료실비와 같이 입원/통원 시 상해 정도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짐. 피보험자로서 계약자 본인만 보장받는 타입과 가족 모두가 보장받을 수 있는 타입이 있다고 함.
- 자세한 JA농업공제연합 관련 설명들은 제공받은 자료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음.

